



새영화 '아파트' 호러 퀸으로 컴백한 고 소영

“스릴 만점... 새로운 도전”

고소영이 돌아 왔다. '이중간첩' 이후 3년 여만이다. 영화의 흥행실패, 특히 평단에서의 가혹하리만큼 매서웠던 비판에 충격을 받은 듯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왔다.

영화뿐 아니라 TV와 CF 활동 모두 중단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연기활동을 중단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심심치 않았다. 그런 그녀가 의외의 컴백작을 선택했다. 공포영화는 1994년 데뷔작이었던 '구미호' 이후 처음이다.

- 왜 컴백작을 공포물로 골랐나? 데뷔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인가?

▲ 원래 공포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동안 주로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 등에만 주력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표현 영역을 넓히고 싶었다. 좀 더 다양한 역할, 다양한 이미

지를 해보고 싶다. 공포영화의 연기라는 게 워낙 쉽지가 않다.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 '아파트'는 어떤 내용인가?

▲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매일 밤 9시 56분에 꼭 불이 나간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연쇄살인사건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범인은... 말할 수 없다.(웃음)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연재된 인기만화를 원작으로 했다. 강풀 씨의 만화인데 제목도 같다. 하지만 내용은 상당 부분 다르다.

- 오랜만의 연기라서 힘든 점도 없지 않겠나.

▲ 스태프 모두가 많이 배려해 주고 있다. 안병기 감독께서 특히 마음을 많이 써주신다. 쉬운 촬영부터 시작해 조금씩 연기 강도를

높여가는 식으로. 마라톤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다시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상대 역할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상대 없이 표정 연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새삼 깨닫게 됐다.

- 앞으로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도 되나?

▲ 쉬지 않고 꾸준히 작업할 생각이다. 다음 작품으로는 스물아홉살 내일 아티스트를 주인공으로 한 로맨틱드라마 '주문을 걸어'를 준비중이다. 좀 더 다양한 역할, 그동안 한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도 해보고 싶다. 생각해 보면 코미디 연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영화전문기자 ohjdjin@hotmail.com



'극장 월드컵 대전' 시작

멀티플렉스 영화관, 한국 경기 생중계로 영화팬 모으기

전국 극장가가 월드컵의 개막과 함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관객수가 급감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때를 고려하면 평균 30%의 관객이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멀티플렉스들은 재빠르게 월드컵과 손을 잡았다. 스크린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대신 월드컵을 방영하겠다는 것. 피할 수 없으면 오히려 끌어들이자는 전략인 셈이다. 실제로 국내 3대 메이저급 멀티플렉스는 지난 6개월 동안 신중하게 '극장 월드컵전'을 준비해 왔다. 극장에서 월드컵 경기를 '상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바로 중계권. 이를 위해 각 멀티플렉스는 자신들의 극장에 축구중계를 '링크'시켜줄 공중파 방송사들을 찾아 나섰다.

그 결과 CGV는 SBS와 협약을 체결해 13일과 19일, 24일에 열린 토고전 및 프랑스전, 스위스전을 모두 생중계할 예정이다. 메가박스 역시 KBS와 업무협약을 체결, 모든 경기를 생중계한다는 계획. 롯데시네마는

MBC와 계약을 맺었다. 월드컵 극장 생중계가 가장 돋보일 멀티플렉스는 바로 CGV. 전국 36개 지역에 총 274개의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CGV는 이 기간동안 가장 많은 축구관객을 불러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극장에서 축구경기가 '방영'되는 것에 대해 우려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번 월드컵 시즌에 축구경기를 상영하는 곳은 철저하게 3대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큰 극장'들이다.

극장 스크린으로 방송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디지털 상영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멀티플렉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디지털 영사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1천800개 스크린 가운데 2.3% 정도에서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월드컵을 겨냥한 극장가의 특수는 국내 영화계에 '부익부 빈익빈'의 또 다른 문제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높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jdjin@hotmail.com

'환생' vs '오멘' vs '더 포그' 울 여름 흥행대결



환생



오멘



더 포그

공포영화의 계절이 왔다

공포영화의 계절이 돌아 왔다. 울 여름 무더위는 유난히 일찍 찾아 왔다. 그래서인지 울 여름 개봉될 공포영화의 편수는 여느 해의 두배가 넘는다. 이번 주에만 세편의 공포영화가 동시에 개봉됐다. 울 여름 공포영화의 수위를 집약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 환생 = 감독 시미즈 다카시 | 주연 유카, 카리나, 후지 다카코

시미즈 다카시의 영화는 늘 머리를 쭈뼛거리게 만든다. 음산하고 기분나쁘게 하는 데는 정통이다. 그의 전작인 '주문' 시리즈를 생각하면서 그의 이번 신작을 되도록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카시 감독이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데는 그의 이야기가 늘, 혼령의 세계와 가공할 실제 살인사건의 중간지대에 놓여

있거나 겹쳐져 있기 때문이다. 유령도 무서운데 다들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이번 영화 '환생'의 원혼들은 그 사연이 보다 깊고, 보다 엮기적이다. 게다가 죽은 사람은 12명인데 환생한 사람들은 13명이다. 거기에 이 영화의 미스터리가 있다.

◆ 오멘 = 감독 존 무어 | 주연 리브 슈라이버, 줄리아 스타일즈, 미아 패로우

1976년 리처드 도너 감독이 만든 동명 영화를 30년만에 새로 만들었다. 전설적인 공포영화를 리메이크한 만큼 전 세계 개봉일도 천만에 한번 찾아 온다는, 이른바 '666 데이' 곧 2006년 6월 6일에 맞췄다.

'666'은 악마의 자식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알려져 있다. 6월 6일 새벽 6시, 이탈리아 로마

에서 미국의 외교관인 쏜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에게 비밀로 붙인 채 같은 날짜, 같은 시각에 태어난 아이를 데려온다.

하지만 아이가 커 가면서 이 외교가(家)에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새로운 해석을 가져지 않고 전작의 내용을 충실하게 재현한, 말 그대로 리메이크작이다. 전설의 여배우 미아 패로우의 요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

◆ 더 포그 = 감독 루퍼트 웨인라이트 | 주연 메기 그레이스, 셀마 블레어, 톰 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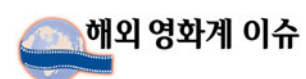
B급 공포영화의 대표적 작가로 불려 온 존 카펜터 감독의 1980년작 '안개'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의 한 작은 해

변마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다. 그 사건의 배경에는 '안개'가 깔려 있다. 자욱한 안개가 덮이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계속 죽어 나가는 것. 아주 오래 전에 이 마을로 들어오던 나병환자들이 배가 난파해 물살을 당한 사건이 있었고 그 원혼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

이야기 자체는 매우 고전적인 감이 있지만 이번 리메이크작은 분위기를 '영(young)'하게 만들었는데 주력했다. 마치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의 해변판 같은 느낌을 준다. 청춘스타급 배우들이 나오는 일종의 하이틴 슬래셔 영화.

톰 웰링은 요즘 국내 케이블TV로도 한창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스물발'의 주인공이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jdjin@hotmail.com

중 여배우 장쯔이 할리우드 입성 잔걸음



중국 여배우 장쯔이의 할리우드 행보가 최근들어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롬 마셜 감독의 영화 '게이샤의 추억'에서 영어를 구사하는 일 본 게이샤 주인공 역할을 무난히 소화했던 장쯔이가 할리우드의 대표적 인 제작자 중 한 사람인 하비에 와인스타인과 최근 무려 3편의 영화 출연

계약을 동시에 맺었다고 미국 할리우드 리포터지가 보도했다. 출연작은 윌트디즈니 만화영화 '물란'의 동명 실사영화와 구로사와 아

키라의 걸작 '인의 사무라이'를 영어로 리메이크한 작품.

'물란'에서 장쯔이는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 전쟁터에 나가 무공을 세우는 여주인공 물란으로 출연할 예정이며, '인의 사무라이'에서는 마을을 습격한 도적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맞서 싸우는 시골소녀 역할을 맡았다. 두 편 모두 영어로 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의 사무라이'에는 장쯔이와 '게이샤의 추억'에 함께 등장했던 양자경도 출연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번째 영화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광주 외국어 학원 첫! 개강 16월22일 7월 3일. Table with columns for course types and fees.

출장뷔페 · 도시락납품 · 위탁급식. 파티외식산업. Contact information for party catering services.